

승리의 길에서 맞는 일흔번째의 봄

한겨울이 가고 어느덧 경칩무렵이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의 서정은 불현듯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갈피에서 보게 되는 한장의 사진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세기 항일대전이 한창이던 때 만주와 국내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앞두고 모씨야 원동땅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구상하시던 날에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자작나무 앞에서 김정숙녀사와 함께 찍으신 사진이다. 두분께서 전우들의 절절한 권유로 찍으신 사진 뒤면에는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01영구에서》라는 글이 씌여져있다.

수령님께서 당시를 더듬으시며 결혼사진이나 다름없다고 소중하게 추억하신 그 뜻깊은 사진에는 한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로고와 애국충정의 세계가 어려 있다.

1941년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제의 최후발악적인 공세와 조선인민에 대한 미중유의 파쇼적폭압과 략탈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던 때였고 세계적인 관도에서는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어수선한 동란의 해였다.

타향산천에서는 봄도 서리친다고들 한다.

그러나 백두산위인들께서 맞으신 타향의 봄은 따뜻했다. 언제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고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과감히 뚫고 헤쳐오신 수령님이시였고 머지않아 도래할 항일대전의 승리를 락관하신 김정숙녀사이시였다. 수령님께서 타향에서 봄을 맞이했지만 모두가 신심에 넘쳐있었고 기세도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그 해의 봄은 잊을수 없는 추부의 계절이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봄을 타향에서 맞아야 될 것인지 아직은 레일의 일이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봄맛이를 그리시며 준엄한 국내전쟁의 길을 앞두고 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기념사진을 남기신 것이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의 평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동료 주저를 모르고 에둘거나 피하지도 않았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 (1941. 3. 1)

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수성성상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것은 만년을 맞바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 나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 꺾이면 꺾이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고결한 혁명정신, 계획으로 기

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의 발현이었다. 그 불멸의 기념사진에는 백두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과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조국산천을 그리시며 해방의 그날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영상이 어려 있다. 그 영상을 우리라면 미제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가렬적절한 전파의 나날이 될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났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라는 노래를 몸소 부르시며 인민군장병들을 사랑하는 고향땅,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의 성정으로 불리일으키시여 전승의 날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전설적명장의 숭엄한 모습이 우뚝이 떠오른다.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시는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한성도

대한 크나큰 포부와 락관을 북돋아주며 이 강산에 일흔번째의 봄이 왔다. 선군으로 우리 조선을 사상에서도 제일, 군사에서도 제일, 경제에서도 제일로 만들어 누리에 더욱 빛내이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바야흐로 맞이할 강성대국의 그날을 사람들이 가슴벼치게 그려보는 희망찬 봄이다.

본사기자 리 설

향만루대중식당이라고 하면 빼자, 스낵케미와 같은 외국음식을 내는 다른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짜장, 교즈, 우동, 팬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색다른 음식봉사로 사람들속에서 인기있는 식당의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다른 나라의 요리를 봉사하는 식당을 건설하여 우리 사람들이 맛보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식당이 앓을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건물설계형성안도 친히 지도하시면서 몇쟁이건물로 짓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생겨난 식당이다.

완공된 식당이 문을 열 무렵이었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식당을 만가지 향기가 넘쳐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향만루》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식당의 간판 하나를 두고도 인민의 리상이 천만가지 북으로 실현되는 오늘의 운택하고 문명한 음식문화생활을 그려보신 것이었다.

인민들에게 민족고유의 전통음식과 함께 세계의 이름난 요리들도 맛볼수 있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도록 하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의 로고와 보살핌

《향만루》에 비끼 사랑의 세계

이 비껴있는 그 이들도 유정한 음식점이다. 하루에 남짓하게 영업을 하고있는 향만루대중식당은 최근에 개건되어 그 면모를 일신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식당을 찾으신다. 개건된 식당의 내외부를 일일이 돌아보시고 갖가지 요리들도 보신 그이께서는 요리의 가치수도 높이고 질을 개선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맛좋고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이 봉사하도록 할데 대해 이리시면서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 땅에 밭을 불이 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며 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애국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제 땅에 앉아 세계의 여러 명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음식문화생활에서 리상이 현실로 된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의 일단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향만루대중식당이 할수 있겠다. 본사기자

《되기때문에 된장이라고 한단 말이요》

주체88(199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여러 생산과정들을 거처 콩이 발효되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훈훈한 공기가 흐르는 발효작업반에 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모두 가까이 와서 보고 배우라고 하시며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된장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는 동행한 일군에게 된장을 왜 된장이라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뜻밖의 물음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도 단순한 리치이니 말을 못하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봄이 왔다. 강산에 봄기운이 약동하는 이 계절 공화국의 인민들은 토지개혁법령발포 65돛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는다. 이날을 맞는 인민들은 수천년을 내리오던 봉건적착취와 예속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제 땅을 가져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이 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자기의 품에 열어진 씨앗을 애기처럼 효도단으로 감싸안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며 줄기와 가지를 자라우고 잎새를 피워올려 열매를 맺게 하는것이 땅이다. 오탁백과를 안아키워 인간생존의 기초수단인 양식을 해결해주는 삶의 터전이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고 유명무명의 애국선열들이 조국땅을 지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지난날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농업에 종사한 우리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땅을 다 빼앗기고 제 땅이 없어 대를 물려가며 소작살아,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더우기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에는 살아서 몸돌 곳도 없었고 죽어서도 묻힐 땅이 없었으며 한해기 논이나 밭도 없어 선

조의 백골이 묻힌 이 땅을 동지고 지경넘어 현해탄을 건스기도 했다. 하기에 푸르러가는 들에 나섰던 한 시인은 《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비탄하게 가슴을 치며 발목이 시도록 제 땅을 밟아 보고싶다고 절규하였던 것이다. 땅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농사지으며 살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아버지수령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조국 해방을 안아 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토지개혁을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

였다. 토지개혁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농촌에도 나가보시고 밭머리에서 농민들의 의사와 들으시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구상에 따라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였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밑에 농민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동방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땅과 더불어 한생을 흙냄새속에서 지내며 모든 고초와 불행은 겪어온 이 나라 농민들이 평생소원이 이루어진것이 꿈만 같아 제 이름이 적힌 표말이 있는 밭머리에서 밤새도록 눈시울 적시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오늘도 나라

의 대지에 어려 있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 지주집머슴으로 잔뼈가 굵은 한 로인을 만나시여 땅도 좋은 땅으로 부여받도록 하시고 지주가 살던 덩실한 기와집에서 살도록 해주시였으며 손수 《박징반》이라는 문패까지 쓰시여 대문기둥에 맡아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생겨났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오신 땅, 이 나라의 토지가 오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자기의 모습을 일신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드넓은 전야, 주름살달린 울망줄망한 피기논밭들이 번듯하게 퍼인 협동농

의 대지에 어려 있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 지주집머슴으로 잔뼈가 굵은 한 로인을 만나시여 땅도 좋은 땅으로 부여받도록 하시고 지주가 살던 덩실한 기와집에서 살도록 해주시였으며 손수 《박징반》이라는 문패까지 쓰시여 대문기둥에 맡아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생겨났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오신 땅, 이 나라의 토지가 오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자기의 모습을 일신했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드넓은 전야, 주름살달린 울망줄망한 피기논밭들이 번듯하게 퍼인 협동농

을 바라볼 때면 강성병영하는 조국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끝없는 헌신의 장정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보통때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거창하고 방대한 토지정리를 구상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주체87(1998)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강원도의 대백벌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의 토지를 정리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토지정리를 할바에는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통이 크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 라고, 모든 논밭을 보기만 하여

도 마음이 후련하게, 후세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해야 한다고 이 르시였다. 그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령도에 의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토지정리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강원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토지정리가 번창이던 그 무렵 회한하게 변조된 평북땅의 한드레벨을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한드레벨이 천지개벽되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이며 만민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조국의 대지를 기쁨진 육두로 전변시켜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서 총격 일하며 만복을 누리도록 하며 풍요한 대지와 더불어 나라의 부강번영을 안아오시려는 숭고한 애국애민의 의지가 어려 있었다.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토지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오늘 개천-대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과 같은 관계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남흥과 흥남의 비료생산기지가 든든히 축성되어 농민들이 땅경정, 물경정, 비료경정을 모르고 농사지을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이 나라 대지에 깃든 토지문제 해결의 자랑찬 력사는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서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길이 전해갈 것이다.

본사기자 최 석 현

선군침송의 메마리

오늘날 공화국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추동하는 문화예술의 생활력은 대단하다. 천만사람의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키는 그 위력에 대해 남조선의 《자유민보》는 지난해에 이렇게 전하였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소개되고있는 북의 예술영화 《황철나무중대》는 북의 모습을 담고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현지도과정에서 소개된 황철나무중대의 모범이 벌써 영화 《황철나무중대》로 나온 정도로 북의 영화제작 등 문화예술창작활동이 현실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지난해 5월말에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연속편들이 제작, 상영되던 일은 충격적이었다. 기동적인 영화제작이 북의 새로운 문화예술창작흐름으로 정착되어가고있는것 같다. 지난해에 진행된 《10월음악회》의 경우도 그렇고 북문학에 새계에 새로운 혁신적바람이 불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있다. 《황철나무중대》라는 영화도 이미 다 알려진 황철나무중대의 군관들이 병사들을 친혈육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강한 군인들로 키워간다는 주제를 담고있다.

《북은 지금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인민군대와 아무 인연이 없는 필자도 보는 내내 흐르는 눈물 활력은 대단하다. 천만사람의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키는 그 위력에 대해 남조선의 《자유민보》는 지난해에 이렇게 전하였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소개되고있는 북의 예술영화 《황철나무중대》는 북의 모습을 담고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현지도과정에서 소개된 황철나무중대의 모범이 벌써 영화 《황철나무중대》로 나온 정도로 북의 영화제작 등 문화예술창작활동이 현실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지난해 5월말에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연속편들이 제작, 상영되던 일은 충격적이었다. 기동적인 영화제작이 북의 새로운 문화예술창작흐름으로 정착되어가고있는것 같다. 지난해에 진행된 《10월음악회》의 경우도 그렇고 북문학에 새계에 새로운 혁신적바람이 불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있다. 《황철나무중대》라는 영화도 이미 다 알려진 황철나무중대의 군관들이 병사들을 친혈육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강한 군인들로 키워간다는 주제를 담고있다.

인민군대와 아무 인연이 없는 필자도 보는 내내 흐르는 눈물 활력은 대단하다. 천만사람의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키는 그 위력에 대해 남조선의 《자유민보》는 지난해에 이렇게 전하였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소개되고있는 북의 예술영화 《황철나무중대》는 북의 모습을 담고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현지도과정에서 소개된 황철나무중대의 모범이 벌써 영화 《황철나무중대》로 나온 정도로 북의 영화제작 등 문화예술창작활동이 현실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지난해 5월말에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의 연속편들이 제작, 상영되던 일은 충격적이었다. 기동적인 영화제작이 북의 새로운 문화예술창작흐름으로 정착되어가고있는것 같다. 지난해에 진행된 《10월음악회》의 경우도 그렇고 북문학에 새계에 새로운 혁신적바람이 불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있다. 《황철나무중대》라는 영화도 이미 다 알려진 황철나무중대의 군관들이 병사들을 친혈육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강한 군인들로 키워간다는 주제를 담고있다.

본사기자

영원히 안겨 살 사랑의 품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90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25년, 매일같이 받아안은 사랑에 격정을 금할수 없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사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저의 생일(2월 14일)을 잊지 않으시고 은정어린 생일선물상을 보내주시셨습니다. 자신께서는 생신날마저 오직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러

조강도강행군현지지도의 길에 바치시면서도 이렇듯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생일상을 받아안고보니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누려온 영광과 행복의 날들이 삼삼히 어렸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발들어 우리 부부가 조국의 품에 안긴 그 날부터 오늘까지 저를 늘 의사의 감시속에 살게 해주시면서 저의 건강에 자그마한 이상이 생길새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온 나라가 뜻밖에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그때 그 누구보다 보통한 마음을 안고계시면서도 손수 전화를 거시어 아버지수령님과 연락속대로 온천휴양을 가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료양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정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조그마한 지근근한 류미영 만 조국에서는 유능한 중앙병원에 저를 데려다 등 록해놓고는 한주일에 한번씩 무조건 검진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꼭꼭 제정된 시간에 보약을 먹도록 《요구성》도 높입니다. 꽃밭속에 잠기면 그 향기를 미처 다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최절정에 올라 너무도 큰 복만을 누리다니니 저는 어떤 때에는 의사들에게 이제는 약도 그만 먹고 검진도 그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행복한 투정질을 하고도 합니다. 이젠날 미국이나 남조선과 같은 사회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은 돈이 들었겠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었다고 하니 감복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다. 더우기 저의 집에 정히 모셔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며 장군님께서 제게 올린 편지에 남긴 친필서한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는 친척들에게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지 이렇게까지 최상급에서 사는줄은 몰랐다고, 세계를 둘러보면 한때 명망있던 정객이나 인사들도 늙어서는 돌아보는 사람이 없게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고있으니 정말 행운을 타고났다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습다.

생각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보답이 나는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하다,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살기때문이다, 누구나 안기면 만시름이 가셔지는 한을 넘길같은 장군님의 광복의 품에서 사니 몸도 마음도 젊어만진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환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난날 남조선이나 해외에 있을 때에는 생일날이요, 환갑날이요 하면 쓸쓸하고 서럽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구갑상에 앉고보니 태양의 빛바람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날들이 삼삼히 떠오름을 억제할수 없습다.

저는 중앙의 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공화국에서 의술이 제일 높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박사, 교수들로 무어진 의료진의 특별한 관심속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대수술을 받았습다. 이렇게 저는 다시 살아났습다. 기적같은 환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수술을 맡았던 의사선생이 웃음을 머금으며 《선생은 이제 100살은 문제없습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로서의 의학적진단이나 제 생명의 육체적한계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에 생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의 자양양과 같은 위인의 사랑이 있기에 제가 앞으로 백살장수를 반드시 노래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 오늘을 제가 90초생일상앞에까지 앉을수 있게 되었다고 저의 심장은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 웨치고있습니다. 정녕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저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건강을 되찾아주시 환생의 은인이시며 제 생명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다면 이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였을것이다, 이런 행복의 요람에서 살기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거거에 있지만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의 품을 떠나 못사는것이 이 류미영이라는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다.

실치로 저는 요즘 매일같이 젊어지고 생각이 솟는 기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시고 조국의 천리방선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장들, 인민생활향상의 주요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상을 우리들수록 온몸에 부쩍부쩍 새 힘이 솟음칩니다.

원래 저는 조국에 영주하기 전에 벌써 중앙집행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육체적으로는 이미 지옥행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1984년 3월 예순세 살이던 해에 저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운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수술을 맡았던 의사선생이 웃음을 머금으며 《선생은 이제 100살은 문제없습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로서의 의학적진단이나 제 생명의 육체적한계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에 생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의 자양양과 같은 위인의 사랑이 있기에 제가 앞으로 백살장수를 반드시 노래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제가 90개의 정점에 오를수 있는 것은 결코 명이 길어서거나 유전적인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 가문만 놓고보더라도 60살을 넘긴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수술을 받고도 해도 미국땅에서 중앙수술을 한번 하는대 적어도 몇만달러, 어려운 수술같은것은 부르는것이 값일진대 그 많은 치료비도 문제거니와 설사 수술을 해도 병을 고칠수 있다는 담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아마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삶에 대한 예찰과 절망사이에서 몸시 고민한 적은 없었던것 같습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나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 서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다는 허탈감밖에 없습다. 태를 물은 조국에 가보지 못한채 타향만리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서글프기만 하습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 곳 없는 이역땅에서 생사를 운명에 맡기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의리로 환생의 기적을 안겨주시신분은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제가 사정에 처한 사실을 보고받은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조국으로 불러 치료해줄데 대한 긴급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녕 지구끝을 떠나면 아메리카땅에까지 비쳐든 가슴뜨거운 재생생활의 빛깔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얼마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삼가 편지를 올린 소식을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최근 이북분원의 과학자들은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던 유전자해석기술과 줄기세포의 분리배양을 자체의 기술로 성공시키고 피형진환기술을 개발하여 연구결과를 확정하는 등 수많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올리고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지속되는 강추위로 모든것이 명멸 얼어붙던 추운 겨울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분원의 과학자들이 저를 연구성과를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대단히 만족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이곳 분원의 과학자들은 절세위인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최첨단돌파전에 앞장서는것으로써 보답할 뜨거운 애국의 결의를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던것이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편지를 읽어보면 령도자와 인민간의 흐르는 따뜻한 혈육의 정에 흐르는 감동을 금할수 없다. 분원의 과학자들은 편지에서 지난 기간 첨단과학연구성과들로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있던 인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활보하게 된것은 물론 백살장수까지 담보받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절세위인들의 인간사랑, 동포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환생의 전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망명객의 설움과 눈물속에 삶의 맛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회 부부가 《신인간》으로 필수 있던것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장수활력을 주시였습니다. 비옥한 대지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빛이 눈부신 화원에서는 시들줄 모르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제가 그러한 삶의 풍요를 맞으며 고목에 꽃이 피어나는 회한한 인생을 살았습다.

장군님께서 저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새라 깊이 마음쓰고계십니다. 집에서 꽃방석에 앉아있게 해주고 밖을 나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사무실에서도 금방석에 앉아서 일을 보도록 온갖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각별히 위 해주시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달려와 인사를 하며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함어나니라며 내 손목에 매어달리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앉자리를 양보하며 우대해주시니 만나서 사람마다 저를 존경해줍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록은 그대로 제몸의 로화를 가셔내는 장생불로약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90평생을 통해 확신하였습다.

류 다 른 편 지

칼빛보다 밝게, 별빛보다 빛나게

리인영 조선불장식센터 소장과의 대담

기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총공격적인 거창하게 벌여지고있는 오늘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야경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전면시킴을 위한 사업에서 조선불장식센터가 거둔 성과가 많으리라고 본다.

리인영: 우리 센터는 생겨난지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기간 평양시와 같은 큰 도시의 전면적인 불장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적었지만 우리 센터의 인력들과 연구자들이 합심하고 달려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불장식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동상과 평양체육관, 방산관, 개신관, 인민문화궁전, 주체사상탑, 옥류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주요건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원산과 함흥, 남포, 회령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불장식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실현하였다.

리인영: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평양시의 모든 거리들에 대한 불장식을 완성하는 한편 지방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방성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지금 송림시, 평성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불장식도안이 설계되어 적극 도입되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야경을 보고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에 불장식조명전문가들까지도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불장식을 실현하였다고

기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총공격적인 거창하게 벌여지고있는 오늘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야경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전면시킴을 위한 사업에서 조선불장식센터가 거둔 성과가 많으리라고 본다.

리인영: 우리 센터는 생겨난지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기간 평양시와 같은 큰 도시의 전면적인 불장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적었지만 우리 센터의 인력들과 연구자들이 합심하고 달려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불장식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동상과 평양체육관, 방산관, 개신관, 인민문화궁전, 주체사상탑, 옥류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주요건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원산과 함흥, 남포, 회령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불장식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실현하였다.

리인영: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평양시의 모든 거리들에 대한 불장식을 완성하는 한편 지방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방성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지금 송림시, 평성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불장식도안이 설계되어 적극 도입되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야경을 보고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에 불장식조명전문가들까지도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불장식을 실현하였다고

기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총공격적인 거창하게 벌여지고있는 오늘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야경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전면시킴을 위한 사업에서 조선불장식센터가 거둔 성과가 많으리라고 본다.

리인영: 우리 센터는 생겨난지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기간 평양시와 같은 큰 도시의 전면적인 불장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적었지만 우리 센터의 인력들과 연구자들이 합심하고 달려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불장식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동상과 평양체육관, 방산관, 개신관, 인민문화궁전, 주체사상탑, 옥류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주요건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원산과 함흥, 남포, 회령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불장식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실현하였다.

리인영: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평양시의 모든 거리들에 대한 불장식을 완성하는 한편 지방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방성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지금 송림시, 평성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불장식도안이 설계되어 적극 도입되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야경을 보고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에 불장식조명전문가들까지도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불장식을 실현하였다고

기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총공격적인 거창하게 벌여지고있는 오늘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야경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전면시킴을 위한 사업에서 조선불장식센터가 거둔 성과가 많으리라고 본다.

리인영: 우리 센터는 생겨난지 불과 몇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기간 평양시와 같은 큰 도시의 전면적인 불장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적었지만 우리 센터의 인력들과 연구자들이 합심하고 달려들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불장식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리마동상과 평양체육관, 방산관, 개신관, 인민문화궁전, 주체사상탑, 옥류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주요건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원산과 함흥, 남포, 회령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불장식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실현하였다.

리인영: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평양시의 모든 거리들에 대한 불장식을 완성하는 한편 지방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방성있게 밀고나가려고 한다. 지금 송림시, 평성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대한 불장식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불장식도안이 설계되어 적극 도입되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전국의 주요도시들의 야경을 보고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에 불장식조명전문가들까지도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불장식을 실현하였다고



국립연극극장의 야경

본기자 박금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란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은 민족적합의와 정전협정도 안중에 없이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미 계획한대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전투태세에 돌입하였으며 핵동력항포함 동해상작전집단들이 남조선주변수역에 기동전개되었다. 공중전위주의 침략전쟁방식에 따라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라격비행대들도 출전대기상태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의 위협전만한 군사적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은 거례의 지향과 요구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현 사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과위공군사화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을 그의적으로 결렬시킨 역적대당의 진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금변사태》를 노리고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역적대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멸공고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것이다.

우리 인민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세운으로 일떠세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금변사태》나 《붕괴》를 바라라는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얼빠진 자들의 한갖 개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회비극적인 가스로운 망상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에는 오직 세상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체제에 감히 도전해 나서려는자들을 최종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2.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국지전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한다는것을 드러낸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무모한 도발에 언제든지 정의의 전면전으로 대응할것이다.

미제와 역적대당의 《국지전계획》은 그 누구의 《류형별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꾸며진 반공화국대결각본이다.

그 무는 《국지전계획》은 끊임 없는 군사적도발과 압박으로 상대방을 소모약화시켜 붕괴시키려는 미제의 교활한 전략의 산물이다. 우리에게서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이 있으며 그 어떤 도발과 침략적인 모략수법도 손금처럼 꿰뚫어보고 그것을 일격에 짓밟아버릴수 있는 전인민적인 고도의 예성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다.

만약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온다면 세계는 일찌기 알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전대응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동시에 상상할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들을 산산이 짓부셔 버리는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것이다.

3.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체제를 노리고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라격전으로 맞서나갈것

이다.

현실은 미제와 역적대당이아말로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전투함선집단과 전략폭격비행대들을 비롯한 각종 핵라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어 우리에 대한 핵공갈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과탄시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또한 핵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현미형정부의 구호가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다는것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침략자들의 계속되는 핵위협에 우리 식의 핵억제력강화로, 우리 미사일을 제거하려는 악랄한 기도에 우리 식의 미사일라격전으로 대답해나설것이다.

우리에게는 평화도 소중하다. 긴장완화 역시 우리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요구이다.

그러나 미제와 역적대당이 평화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의를 침략적인 군사행동으로 도전해나선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맞서 단호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주제100(2011)년 2월 27일 판문점

조선사회민주당과 남조선민주노동당이 3.1인민봉기 92돐을 맞으며 1일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조선사회민주당과 남조선 민주노동당은 조선인민에게 씻을수 없는 특대형의 반일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배상근녕사죄도 똑똑히 하지 않고 피비린 침략과 략탈의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등에 업고 또다시 대화와 자치아나라들에 대한 체침야망을 이

조선사회민주당과 남조선 민주노동당

반일공동성명 발표

루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일본을 단죄규탄하고있다.

두 당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력력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체침행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대시키며 체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백년속적 일본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사대매국세력의 위협천만 한 망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당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협을 조성시키며 체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백년속적 일본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사대매국세력의 위협천만 한 망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당은 3.1인민봉기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성, 자주정신을 이어 반외세자주화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 애국심과 희생성, 자주정신을 이어 반외세자주화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당은 남남공동성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례의 대행진의 앞장에서 나아감으로써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피괴화전광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지역에서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강행하고있다.

핵항공포합집단과 스트라이커부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중원무력과 핵선제라격수단들이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되고있는 가운데 미군과 피괴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고도의 전투태세에 진입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화약내, 불구름으로 뒤덮여있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이 빈번히 감행되었지만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체제》나, 《금변사태》나, 《붕괴》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체제 《붕괴》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옹근 한계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려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은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방어훈련》이라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점경의 최극단위기에 몰아넣는 책임을 모면하며 내외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황당한 꾀변이다.

대화상대방을 무력으로 패치기 위한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그 누구의 《전쟁정성》을 결코들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실로 파렴치하고 가스로운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지난 조선전쟁전야에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절절한 제안을 담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

국통일민주주의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대해 리승만역도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로 대담해나선그 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애당초 북남대화와 긴장완화, 평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언한대로 민족의 존엄을 떨굴만큼이라도 건드리고 우리의 체제를 감히 어찌보려 하는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당장 결어치워야 한다.

주제100(2011)년 3월 2일 평양

북남로동자평화선언문 발표

조선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남조선의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이 2월 28일 북남로동자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먼저 2000년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그 결실인 6.15공동선언에 대한 고개와 남, 해외 온 거례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는 우리 민족이 반공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념원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축발의 긴장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선언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구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선언문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의 핵항공포합과 수습민명의 방대한 병력

이 동원되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북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있다고 한데 대해 비난하였다.

북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한 동족을 상대로 대구로동자평화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북에 대한 대비책을 운운한것 자체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는 책동이라고 선언문은 단죄하였다.

대구로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일축발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며 대결정체를 고수한다는기도로밖에 달리는 불수 없다고 선언문은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연습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구나 조선반도에서 전쟁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온 거례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

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성실한 자세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선언문은 언급하였다.

선언문은 북남로동자대사회의 연대와 교류를 적극 벌려나가기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민간단체들과 각계층의 접촉과 대화를 거듭 불허하고 법적제재를 가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북남로동자통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단체들사이의 연대활동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것이라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북남로동자대사회의 접촉과 대화, 협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3.1절기념사》라는데서 《대화》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이니 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은 세계가 지켜보는 북남대화의 기회마저 차단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구로동자평화선언문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이 《대화》나, 《같은 민족》이니 하는것은 너무도 변변스러운 행위이고 위선자의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대화상대방인 동족을 군사적행위로 위협하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북침불장난이다. 수습민명의 병력과 핵항공포합까지 동원되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대화와 자치아나라들에 대한 체침야망을 이

하는것에 초점을 둔 이번 연습이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선제공격연습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저들의 대화파괴범죄를 가리우고 내외가 강력히 규탄배격하는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려는 기도에 다른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진속은 대화가 아니라 그들이 동족의 대화제의 의를 외면하면서 《열린 마음》이니,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느니 뭐니 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반공화국대결정체를 하루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법이다.

운현주

확스전송마저 불허한 파쇼행위

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3.1인민봉기 92돐을 맞으며 북남수뇌상봉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하여 그 초안을 남측의 여성단체들에 보내면서 이를 토의하고 회담해줄것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통일부가 공동선언문발표를 위해 남측의 정신대문제대책회의가 제출한 접촉신청을 거부하고 확스전송마저 불허함으로써 공동선언문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통일부는 북남사이의 배양과 접촉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저들의 승인을 받

지 않고 북을 방문하거나 접촉을 가지는 사람들과 단체들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적용하는것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당국간의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다 못해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배양과 접촉마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고약하기 그지없는 횡포이고 또 하나의 대결책동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집권후 지난 3년간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교류, 접촉과 배양을 차단해나갔다.

지어는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해외에서 접촉하는것마저 범죄시하고 차단봉을 올리었다.

지난 2월에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의 기회마저 차단했으며 지금은 범죄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일축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사이의 초보적인 통신교류마저도 차단해나선것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끊고 극단한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행위이다.

인권의 견지에서 보아도 남조선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사이에 편지나 확스 등을 주고받는것은 초보적인 인권의 하나이다. 더우기 정보산업시대에 오늘날 확스도 보내지 못하게 가로막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류례

를 찾아볼수 없는 횡포한 만행이고 폐쇄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이아말로 현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깃잡는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고서도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 북단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이아말로 낮가죽 두꺼운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반통일대결분자들을 규탄하는 거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내외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재

남조선각계에서 보수집권세력의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국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구호뿐인 정책을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라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북정책》

고 하면서 북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전에 마련된 평화담은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고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꿈을 잃은지 오래라고 개탄하였다.

민주로동당 대표는 현 《정부》의 3년동안 남북관

계가 파란되고 남북간 군사적충돌에 이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서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부》의 3년동안 남북관



세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남북관계가 사라지고 국제정치만 남아 집권세력이 《전략적남구자》의 치지로 추락했다고 하였으며 어느 한 교수는 당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의 부재》로 평가조차 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은 남북관계안정과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 매우 동떨어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대북정책》기조로 내는 《비핵, 개방, 3000》이 오일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실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당소속 한 《국회》의원은 당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북의 《전쟁정》있는 태도라량만 하고있는데 앞으로 북의 《사과》가 없으면 남북대화도, 인도적지원도, 6자회담도 없다는것인가고 추궁하였다.

다만 《국회》의원도 대화의 단절이 전쟁위험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당국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동족의 선의와 아랑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전쟁불집을 터치려는 계획적인 도발소동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지금 그 침략성과 위협성은 날이 더욱 증대되어 나타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호전파들은 그 누구의 《도발》을 떠들며 전군에 경계태세를 내리고 그속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있다. 전군이 삼엄한 경계태세를 취하고있는 가운데 벌어지고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한마디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민적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위협천만한 도발소동이다.

몇가지 사실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국지도발 및 전전전》각본에 따라 무려 44개의 유형을 설정하고 진행된다고 한다. 그 유형들을 헤쳐보면 하나에서 열

까지 모두가 공화국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 누구의 《도발》을 격퇴하고 반격하여 공격지점을 점령하고 통치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북의 《금번사태》시의 《수습대책》과 《핵, 대량살상무기제거》와 같은 무모한 계획도 들어있다.

이것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들이 떠드는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침을 노리고 감행되는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호전세력들은 군사적 긴장도가 최대로 높은 조선서해상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며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가 하면 풍선을 통해 적대적인 내용의 배라와 물품을 살포하며 북을 심히 자극하는 심리전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여기에는 저들의 도발행

위에 공화국이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것을 구실로 국지전을 도발하고 그것을 전면전쟁으로 확대시키려는 무서운 흥개가 깃들여있다.

지난 1일에는 남조선의 국방부장관이 최전방부대를 순시하고 《북이 도발할수 있기때문에 모든 도발 유형에 대한 상상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론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작전시행시 현장에서 쏘구요, 말구요 물지 말고 신조치, 후보고 할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남조선군사병들을 북침전쟁에로 부추기는 화약내나는 발언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이번 훈련기회에 공화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타산하여 그 무슨 《미군중원부대동원전략지침》이라든가 작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해 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이 《전략지침》에는 그 누구의 《국지도발》이 조선서해에서 시작되는것을 가산하여 육, 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 000여대로 구성된 미군무력을 조선반도에 신속투입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단순히 공화국에 대한 압박만을 전제로 한 훈련이 아니라 전면전쟁의 방법으로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소한 구실이라도 찾아 군사적총돌을 일으키고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지금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방어》의 탈을 쓴 침략훈련

남조선에서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짙은 화약냄을 풍기며 계속되고있다. 호전세력들은 내외가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에 앞서 그것이 마치 《방어훈련》이고 《넌레훈련》인듯이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은 검은것을 희다고 하는것과 같은 꾀변이고 내외의 평화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고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알려진것처럼 이 훈련에는 남조선과 해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 2만여명을 포함하여 20만명 이상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된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웅근 한개 전쟁을 치르려고도 남을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들을 동원시켜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그것을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는것이야말로 실로 눈 감고 아옹하는 격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전쟁연습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비롯한 최신 공격수단들과 전쟁장비들이 동원되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전쟁지역이나 정세가 긴장한 지역에 나타나 상대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수단으로 리용되어왔다. 지난해 미국이 조선동서해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므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이 최극단으로 치달고 주변나라들까지도 지역정세를 전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려하

고 규탄해나선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로널드 레간》호는 미해군의 주력기인 《FA-18》과 조지프기 《E-2C》를 비롯한 70여대의 비행기를 싣고다니며 반경이 1 000Km를 넘는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고있다. 지난해의 연습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항공모함까지 참가하여 하와과 방, 바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이 북침전쟁연습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그 누구의 《금번사태》와 《도발》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그에 대비한 국지전, 전면전쟁으로 진행되고있는데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에서도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북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때 북의 공격원점타격, 북의 《금번사태》시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20만명이 넘는 《한》 미련합군이 60여일에 걸쳐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훈련, 대규모상륙훈련 등을 벌리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 《방어연습이라는것은 세발간 거짓》이라고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이 땅에 전쟁의 불기를 몰아오는 위협천만한 북침선제공격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요구대로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리명진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최근 그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반공화국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립간각에서 수심만장의 배라, 불순한 동영상자료를 수록한 USB기억기와 DVD, 불순소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공화국의 여러 지역으로 날려보내면서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보수당국은 지난 시기 민간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가 저들과는 판이 없다고 뽐내며 소리를 치던데 언제인가 실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내세워 배라를 날리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고있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너털하게도 옷가지들과 불순물 화물, 불량도시들을 담은 바구니를 풍선에 매달아 북측지역에 들어보내다가 하면 공화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배라도 함께 북으로 날려보내고있다. 남조선의 국방부가 2월초부터 북에 살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또 하나의 전쟁행위

포한 물품은 남조선돈으로 6억 2 000만원어치에 달하며 지난해말의 연평도포사격전 이후 최근까지 북에 날려보낸 배라는 무려 300여만장을 헤아린다고 한다. 지금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는 대형화성기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임의의 순간에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이 재개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심리전은 말그대로 상대측의 군대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내부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극도의 적대행위로서 그자체가 전쟁의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보수당국도 심리전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

본사기자 서명수

거족적인 애국투쟁으로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선전포고이다.

이 전쟁연습소동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결렬적으로 몰아간 남조선당국과 결연으로는 북남대화를 지지하는

척 하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것이다. 바로 공화국의 그 무슨 《금번사태》, 체제 《붕괴》를 물리침으로써 앞당겨보자는 어리석은 기도의 산물이다.

내외호전세력의 이러한 침략전쟁연습소동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불을 즐기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도발적인 전쟁연습책동이 초래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보아야 한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연습소동을 준엄히 규탄배격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원호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북과 남사이에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차단하고 끝끝내 전쟁연습의 화약냄을 풍기는 이 도발적인 행위를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것이냐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간파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월

예비회담을 결렬시킨 진의도

8일부터 9일까지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북측은 앞으로 진행되게 될 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를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사격전에 대한 군사적장사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하자하는것을 제기하였으며 남측의 의견도 대법한게 받아들여 여러 수정제안들도 내놓았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부터 달리는 풀이할수 없다. 예비회담에서 남측이 군사회담의 날자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열리는 2월말로 하자고 고집한 것도 북의 반발을 유도하여 회담을 깨버리고 군사적으로 북을 계속 압박하고 북침전쟁의 길로 나가자는것이였다.

현실적으로 남조선호전파들이 지금 이 시각 의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과 국지전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이 모든것을 의식의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류철진

평화를 위협하는 북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생평화통일추진연대가 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미국당국이 민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끝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핵항공모함과 수심만명의 병

력을 비롯한 방대한 공격무력의 동원하에 북침전쟁계획들이 《작전계획 5029》에 기초하여 감행되는것으로 하여 그 침략적성격이 강하다고 성명을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부정부패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함바집 로비의혹》 사건으로 불리우는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청와대민정수석실 감찰팀장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함바집》(건설현장식당)운영원안일을 전으로 해온 한 중개업자에서 막대한 현금을 받아먹고 각종 개발지역건설장들의 식당운영원안일을 독점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자가 이들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 사건에 관계자들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비롯하여 전, 현직 경찰고위인물들과 현직 여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무려 수십명에 달하며 이들중 현당국자측근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이전 경찰청장 강희락을 비롯하여 당국자의 측근인물들과 여권내 세력가들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참새가 방아간 그냥 못지나간다고 부정부패행위에 이르지 않은 보수집권층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은 현 집권자가 이전 《정권》들과 다를바없는 《집권 4년 타임덕(권력약화)중우》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지어 《한나라당》안에서까지 《측근비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을 보니 이제 세 임력이 시작될것 같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원래 남조선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현상은 집권후반기에 우습하게 나타나는 말기증상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앞으로 있게 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당파 계파사이의 싸움이 우습해지고 대립되는 정

치리해관계로 하여 여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있다. 민심을 짓밟는 반민인적악정은 민생전반을 단란에 빠뜨리고 그로하여 인민들속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개헌》문제와 정국의 주도권장악을 둘러싸고 당국자와 여당사, 《한나라당》내부의 친리계와 친박계의 마찰로 하여 집권층내부도 편안치 않다.

더우기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전쟁책동은 그들자신을 파멸의 길로 더욱 떠밀고있다.

하여 지금 집권 3년을 맞은 현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통치위기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 불어오는 기간에 한 풀이라도 더 끊어모으려는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심판을 받게 될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겠다는데

본사기자 김정혁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한 자랑찬 성과 민족고전 《비변사등록》 번역이 끝난 것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민족고전 《비변사등록》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끝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방침대로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변사등록》은 16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약 300년간 리조봉건국가의 최고중앙관청에서 운영되여온 비변사의 편찬일지이다.

비변사란 한자풀이로 나라의 변방을 방비하는 관청이라는 의미이다. 비변사는 1510년 봉건국가의 국방문제를 담당하던 립시관청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1541년에는 상설적인 군사담당기관으로 되었다. 그후 비변사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조국전쟁을 계기로 국방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전반적인 정사를 토의처리하고 장악통제하는 협의제최고중앙관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변사의 이러한 지위와 기능은 186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비변사는 1865년에 해체되어 의정부에 배속되었다. 비변사가 해체된 이후에도 《비변사등록》은 《정부등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편찬되었다.

리조시기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비변사가 상설관청으로 설치된 1541년부터 《비변사등록》이 웅당 편찬정리되었을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현재 전해지고있는것은 1617년부터 1892년까지 276년간의 등록뿐이다. 이 가운데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200여년간 봉건국가의 최고중앙관청에서 진행된 정부처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날자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록되어있으며 그 분량은 번역본의 책수로 무려 150책에 달한다.

《비변사등록》은 봉건왕조를 유지하고 봉건적통치체제와 질서를 공고히 하며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토의하고 대책을 세운 제반 문제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책은 방대한 분량과 독특한 서술체제 그리고 가치있는 사료들을 풍부히 담고있어 《리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과 함께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리조시기의 대표적인 4대 일기체 민족고전의 하나이다.

《비변사등록》은 내용의 구체성에 있어서 보기 드문 책이다. 일반적으로 일기체로 편찬된 책들은 해당 날짜에 벌어진 사건과 사실들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책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은 호상 구별된다.

실례로 《리조실록》은 봉건국가의 정부일지인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책, 외교, 무역, 문화교류를 비롯한 대외활동 그리고 음악, 무용, 미술, 공예를 비롯한 예술분야와 천문, 기상 등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료들이 폭넓게 수록되어있다.

나라의 정책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에서 벌어진 자그마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봉건국가의 관심사로 되거나 주목을 끌만한 하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사실들이 《리조실록》에는 날자별로 빠짐없이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비변사등록》은 말그대로

비변사의 편찬일지로서 여기에는 등록 편찬정리의 주체인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서 토의취급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분의 사료들만 올라있다.

따라서 이 책의 사료취급범위는 《리조실록》에 비해볼 때 넓다고는 할수 없지만 거기에 수록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분의 사료들은 다른 책들에 비하여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실례로 1653년 8월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 《비변사등록》과 《리조실록》의 5건의 사료 가운데서 2건은 두 책의 내용이 같지만 3건은 《비변사등록》에 수록되어있는 사료들이 《리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며 구체화되어있다.

《비변사등록》에는 리조시기의 다른 고전들에 반영되어있지 않는 사료들도 적지 않게 기입되어있다.

1623년부터 1721년까지 99년간의 《비변사등록》에는 《리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실려있지 않는 많은 사료들이 더 기입되어있다. 비변사에서 작성공포한 300여건의 세칙들도 《리조실록》에는 그 일부만 실려있지만 《비변사등록》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그것은 리조시기의 관

청 및 관직제도, 각종 법 및 금령, 토지제도, 화폐제도, 공물제도, 군사제도, 군영의 설치 및 변동, 주변나라들과의 대외관계와 관련한 세칙 등으로서 리조후반기의 각 제도사와 부문사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비변사등록》은 사료의 구체성뿐 아니라 서술의 정확성측면에서도 다른 고전들과 구별된다.

《비변사등록》은 편찬기관이나 개별적인 편찬자의 손을 거쳐 편찬된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비변사의 문건들을 성문화되어있는 그대로 옮겨 기록한 정리본이다. 따라서 책에 수록된 사료들은 정리자의 주관적의도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으며 아무런 가공도 없는 원전 그대로이다.

이처럼 《비변사등록》은 리조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분의 사료들이 그 어느 고전보다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수록되어있고 자료의 객관성도 잘 보장되었으므로 하여 리조후반기의 역사연구에서 특출한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민족고전이다.

수백년전에 나온 《비변사등록》이 강성대국건설시대에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자기의 참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민방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영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민족고전 《비변사등록》번역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능력있는 번역집단을 꾸려주시였으며 번역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의 번역집단은 지난 시기 방대한 민족고전 《리조실록》을 번역한 경험에 토대하여 부피가 큰 또 하나의 역사책인 《비변사등록》을 10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말로 훌륭히 번역하였다.

복잡다단한 역사적사실들을 어려운 조식식문으로 기록한 수백권에 달하는 《비변사등록》이 우리말로 훌륭히 번역됨으로써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로동신문에서 전재)

고구려사람들의 고상한 결혼풍습

결혼은 중요한 인문대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결혼풍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여 왔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시기의 결혼풍습은 실로 고상하고 건전하였다.

우선 고구려에서는 결혼당사자들의 교제와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는 뿌리깊은 가부장적가족제도와 봉건적도덕규범에 의하여 청춘남녀들의 교제와 사랑이 큰 제약과 받는다.

《남녀칠세부동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봉건사회에서 녀자들은 7살만 지나면 가족, 친척외의 남자와 한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밖에도 마음대로 나타날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이 없었다. 봉건사회에서의 혼인형태는 대체로 중매결혼이었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웃나라의 한 역사기록에는 《고구려사람들은 노애와 출을 즐기는데 나라안의 마을과 거리에서 남자들이 매일 밤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놀이를 한다. ...남녀가 좋아하면 서로 결혼시킨다.》고 써여져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쾌활하고 낙천적인 고구려사람들의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구려

에서 남녀사이의 교제와 결합이 자유로웠으며 청춘남녀들의 사랑문제에서도 본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사람들은 결혼문제에서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내는것으로 그치며 재물이 없이 장가드는것을 레의로 여겼는데 만약 재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딸을 녀중으로 파는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부끄럽게 여기었다.

남자측에서 녀자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는것은 딸을 잘 키워보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혼례식도 허례허식이 없이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씩씩하고 전투적인 고구려사람들은 혼례식에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요란한 상차림 등을 쓸데 없는 허례허식으로, 랑비로 간주하면서 배격하였다. 남자측에서 보낸 약간의 고기와 술, 음식을 가지고 소박하면서도 성의있게 큰상을 차리고 가족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 몇몇이 모여앉아 술 몇잔 나누는것이 전부였다.

고구려에서는 부모들이 중매군을 내세워 선을 보고 사주팔자를 따져가면서 약혼

을 한다든가, 혼인배 신랑집에서 색시집으로 보내는 레 물인 《남매》를 보내는 일도 없었다.

고구려사람들의 간소한 혼인 의식에 대해 15세기의 학자였던 성현은 자기의 저서 《용재총화》에서 《옛날에는 ...혼인하는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앉아 상 하나 차려놓고 술 석잔 돌리는것으로 행례를 끝냈을뿐이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한 후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갈라지지 않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간혹 생활과정에 갈라지는 경우에는 가문의 더없는 수치로 여기었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사람값에 치지 않았다.

재물을 탐내지 않고 허례허식을 싫어하며 씩씩하고 낙천적인 고구려사람들의 건전하고 고상한 결혼생활기풍은 우리 민족의 결혼풍습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본사기자

이 말은 꽃을 시샘한다는 뜻에서 봄철에 꽃이 필 무렵에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꽃샘》에서의 《샘》은 자기보다 잘되는것을 싫어한다는 말의 《새암》이 줄어든 말이다. 예로부터 2월과 3월 사이에 찬바람이 불어든 말이다. 이 것은 찬바람이나 찬비가 봄기운을 피어나려고 하는 꽃을 시샘한다고 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사기자

평양의 한복판을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북쪽에 모란봉을 마주하여 들어앉은 섬이 풍라도이다.

풍라도는 원래 대동강상류인 성천의 비류강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풍라도에서는 땅이 기름지며 옥곡이 잘 자랐으며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하였다.

어느해 여름 전례에 불수 없던 먹장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하늘을 뒤덮으며 물을 둥이로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더니 바다처럼 범람한 비류강의 물이 울썸울썸 떠서 물결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깜깜한 어둠속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떠내려가다가 멈춰선 곳이 바로 모란봉의 청류벽일 대동강 한복판이었다. 처음에 간이 풍알만 해서 다 죽는줄만 알았던 섬사람들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약화가치 그지없는 성천부사의 눈에서 벗어나 별천지와 같은 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안 가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본사기자

어든 말이다. 예로부터 2월과 3월 사이에 찬바람이 불어든 말이다. 이 것은 찬바람이나 찬비가 봄기운을 피어나려고 하는 꽃을 시샘한다고 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사기자

책소개 도서 《조선단대사》 (리조사9)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도서 《조선단대사》(리조사9)를 출판발행하였다.

박사, 부교수 리철홍선생이 집필한 도서는 19세기 중엽이후부터 1904년까지 일본과 청나라, 유미침략력강들이 조선을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벌린 각축전의 역사를 취급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세계자본주의는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면서 세계령토를 최종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강도적침략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때로부터 아시아에서 그 예봉은 조선으로 집중되었다. 그후 조선은 제국주의력

강의 주권강탈, 리권쟁탈의 각축전장으로 변화하였으며 나중에는 일제의 식민지로 되었다.

도서 《조선단대사》(리조사9)는 청나라, 일본, 짜리로씨야간의 조선에 대한 세력권쟁탈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끼여든 미국, 영국, 도이칠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력강들의 공모와 갈등으로 일목진 침략책동과 이에 굴복한 리조봉건정부의 매국배적적인 사대의 존정책을 자료적으로 까밝히고 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해독작용에 좋은 몇가지 식품

— 꿀
꿀은 쉰 살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하여 각종 비루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피로할 때 꿀물을 한잔 마시면 인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으며 해정하는데도 좋다.

또한 대추를 잘게 썰어 꿀에 재웠다가 한술가락씩 먹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며 검은깨와 꿀, 우유를 섞어 아침마다 빈속

에 먹으면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 된장
된장은 간해독에 효과가 크고 항암 및 항로화작용을 한다. 된장을 충분히 먹으면 폐경후 유선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용연자의 경우 된장국을 하루에 한끼이상 먹어야 한다.

— 생강
인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감기와 위장병치료에 좋다. 찹쌀에 넣어 죽을 쑤어먹으면 위장기능을 강화하고 물질대사기능을 높인다.

— 녹두
몸안의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빨리 배설되게 하므로 약과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때 좋다.

— 미나리
술을 마신 다음 머리가 아플 때 좋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에서 양력의 시작

우리 나라에서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양력을 썼었다.

이날이 양력으로 1896년 1월 1일이였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적 사건, 사실 등을 양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달뿐아니라 년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게 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8)

글 량 홍 일, 그림 허 은 혁

《아, 경필동지!—》 하는 김성각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좁인들에서 돌지 못하고 곧추 나가는것이였다. 급기야 조향륜을 틀었으니 말이지 그렇지가 않은 철썩의 천길당떠러지기에 곤두박질을 할뻔 하였었다. 그것이 뒤에서 차를 몰고오던 중대장의 눈에 걸렸던 모양이다.

중대장은 기가 올라 꾸짖었다.

《무슨 변명이야. 동문, 오늘부터 한주일동안 처벌이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하고 주경필은 기여어들어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나도 억울했다. 어쩌면 이리도 인정사정이 없단 말인가. 그렇고 어린 해연이와의 약속을 위해 세기는 지도를 두드리고 꺾개질이라니... 도무지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란 꼬물만지도 모르는 목석인것 같았다.

그때 물바게뜨를 든 김성각이 홀레벌떡 달려왔다.

《상동병, 동무가 조수요?》

《그렇습니다. 중대장동지, 사실 저 지도는 사연이 깊은...》

김성각은 중대장이 껍소리는 바람에 훔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뭐요. 비호하는가? 동문 몇살이요?》

《열아홉살입니다.》

《흥, 밥보다 잠이 더 달때로군. 그대 밤에 운전사는 눈에 달이 떠서 운전하는 눈은 달이 떠서 운전하는 눈. 동문 말이 맞아 졸작정이지? 조수가 졸면 운전사도 같이 졸아. 졸음이 전염병인줄 모르오?》

《당장 병실로 돌아오!》

《그리구 오늘부터 한주일동안 내가 이 차를 몰겠소. 내걸에서도

그렇게 졸다가는 경철줄 알아라!》

중대장은 두부모를 씩씩 자르듯이 이런 말을 남기고는 쉰 걸음으로 가버렸다.

중대장인 최정삼은 주경필과 같은 나이였는데 중국 동북해방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조국 땅에서 전쟁이 일자 제일 선참으로 달려나왔다. 전쟁에서 근 5년동안을 싸우면서 화약내끼나 말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든것이 간단 명료하였고 명령 하나만엔 불렀다. 싸움판에서 굳어진 거친 성격은 그의 행동에서 인정사정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군인들은 그를 보고 뒤에서 독하다고 수군거렸다. 본인도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조금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의 장점으로 여

기어는 것 같았다.

어느새 중대부족으로 사라지는 중대장을 바라보는 주경필과 김성각의 얼굴에는 맹랑한 빛이 어렸다.

《에—이... 한주일동안 맘을 빼게 됐군.》 하며 김성각은 그가 간혹에 대고 입을 삐죽거렸다.

그날부터 주경필은 중대장의 말대로 처벌을 받았다. 그가 받은 처벌은 하루 스물네시간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경도안에 있는 병실에서 정자를 하는 《잡치벌》이었다. 처음엔 처벌치고는 너무 경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정작 당하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남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목신한 침대에 잔등을 묻고 잠이나 자자니 마음속에선 불이 일었고 전우들을 보기가 따분하였다. 처음 하루이틀은 시간 몰린 피로로 하여 그런대로 잠을 자느라고 하였지만 그다음부터는 영치와 잔등이 쑤서나기 시작했다. 중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식사도 정일병이 날라다주어 병실에서 먹어야 하였다. 한걸음이라도 병실밖으로 나가려

고 하면 직일병이 딱 막아나섰고 잠자리에 눕지 않고 서있거나 누워야 한다 고 성화를 먹었다. 자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루가 미칠것만 같아 할수없이 침대에 누우면 눈은 도저히 감길줄을 몰랐고 억지로 감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새록새록했다. 정말이지 처벌이면 이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처벌이

순간적으로 주경필은 머리가 뻐했다. 모든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믿고 싶지 않았다. 엄격한 중대장이 여직 그 지도를 견사하고있었다는 것도 의문스러웠지만 두우기는 모든 사연을 다 안다는것이 이상스러웠다.

《내 그대 한주일동안 동무의 차를 끌면서 조수한테서 다 들었소.》

《!...》

《하지만 그대 동무는 너무도 일반적인것에만 치우쳐있었소. 왜냐면 우선 첫째,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것, 둘째, 규율이 없는 군대는 백전백패한다는것, 셋째, 전쟁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다는것, 이것을 동무는 몰랐소. 그 근거는 어린 딸에게 하나된 이 조국강토를 안겨주겠다고 지도를 새길 생각이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포탄과 탄약을 공급하여 미국놈들을 죽살내고 남병들을 해방했다는 생각이 부족했다.》

《?!...》



《자, 반소. 동무가 딸 해연에게 주겠다고 새기던 지도야.》

《?!...》